

# 만남

# 10

2019

통권 549호

특 집 |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2019 생명대각성 운동



### 표지설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  
라 하신 주님의 선교 명령  
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명  
이다. 사진은 2남선교회의  
필리핀 해외선교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 만남

## C O N T E N T S

### 이달의 말씀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 김운성 02

### 특집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

2019 선교대회 소개 | 최승도 04

지역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 | 문영환 06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 | 윤장훈 08

### 특별기고

2020년 영락교회 목회를 위한 제언 11

종교개혁 정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 최재선 16

###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새가족부 정착팀을 아시나요? | 장덕권 18

금요일 점심은 하나님과 함께 드세요 | 심혜식 20

### 다음세대

우리는 메신저스입니다! | 김규민 22

무덤교회에서 되찾은 뜨거운 감사 | 이민음 24

선교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 신재승 26

### 야곱의 우물가

화요전도훈련이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 송숙희 28

###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거처 삼으소서 | 김영표 30

필리핀을 예비하신 하나님 | 이민하 32

### 영락의 울타리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문이 늘고 있어요 | 김호진 35

성령으로 젖어드는 학생들의 영혼 | 유인선 38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 허귀옥 42

### 봉사와 섬김

아이들과 함께 한 80년 | 김병삼 44

환경미화봉사에 참여해주세요 | 자원봉사부 46

### 문화광장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따른 작은 야고보 | 박정관 47

2019 아트피스트 영상·학술세미나 | 김갑수 48

10월 영락문화공간 50

### 교회소식

제43회 정책당회 외 51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7

새가족 환영 / 유아세례 58

10월 목회력 / 편집장 레터 60

### 2019년 10월호 통권 549호

발 행 2019. 10.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아이엔디아이



김운성 위임목사

##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학자들은 그 원인과 핵심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실제적 이슈는 교회론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두고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교회론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붙이고 있다 해서 다 주님의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성경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원리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사역을 보여주는 복음서와 최초의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원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원리는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공동



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울러 교회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법과 제도와 조직보다 위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조직이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 때, 성령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원리는 전도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던 사도행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 원리는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나누었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안디옥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소아시아로 보냈습니다. 거리가 멀고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조건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근본 원리들입니다. 영락교

회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상의 원리들 중에서 우리는 개인적 증언, 즉 전도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굳이 애쓰며 전도하지 않아도 사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개인 전도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전도는 힘들게 느끼는 반면에, 선교는 사역자를 보내고 재정을 후원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는 하지 않으면서 선교는 열심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은 13장에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이후부터 12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도였습니다. 2~12장에서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에 13장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 12장까지를 생략한 채,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전도하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을 통해 영락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고, 영락교회가 증언공동체로 굳게 서길 원합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을 통해 개인 전도에 힘쓰고, 선교주관을 통해 선교에 힘쓰게 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개인 전도도 잘 하고, 선교도 잘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하소서! **만남**

## 2019 영락교회 선교대회를 소개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멈춤’과 ‘쉽’입니다.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겠다’는 선언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멈추고 싶은 이유는 간절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2019년 선교대회가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10월 13일(주일)부터 18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명의 자리,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영락의 모든 성도님을 초청하며 함께 다시 선포하기 원합니다.

**“선교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자리 : 바자회와 뮤지컬 ‘평양1866’

선교대회 사전행사로 10월 2일(수)과 4일(금), 두 차례에 걸쳐 선교 바자회(주관: 1·2·3·4 여전도회)를 개최합니다. 11일에는 베다니홀에서 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와 문화선교부에서 준비한 선교대회 전야제 뮤지컬 ‘평양 1866’을 공연합니다.



최승도 목사  
선교부  
고양·파주교구

### 함께 배우는 말씀의 자리 : 선교사역 소개와 특강

13일 주일에 베다니광장에 해외 선교사역 부스를 설치해 문화선교팀과 외국인선교팀의 공연, 학원선교 홍보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드림홀에서 장신대 금주섭 교수님을 강사로 초청해 해외 선교 방향과 비전을 모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사도행전 20장 24절

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 찬양예배는 학원선교 보고대회로 장신대 이규민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세대와 학원선교의 비전을 나눕니다.

#### 함께 싸우는 영적 전투의 자리 : 선교 전략세미나

10월 16일과 18일 오후 한 시 반부터는 농어촌 선교 전략세미나와 군선교 전략세미나가 드림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16일), 군선교 전략세미나(18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선교사역의 전략과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 함께 나누는 부흥의 자리 : 선교부흥회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저녁 선교부흥회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선교부흥회는 부광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다시 선교의 사명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선교의 사명자이며 전도자들입니다. 때때로 버겁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도착할 것입니다. 지친 발걸음 다시 일으켜 하나님 나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2019 선교대회 주요행사 및 일정

| 날 짜                    | 행 사   | 시 간         | 장 소            |
|------------------------|---|-------------|----------------|
| 10월 2일(수)<br>10월 4일(금) | 선교 바자회  | 09:00~      | 베다니광장          |
| 10월 11일(금)             | 문화선교 축제   | 금요기도회       | 베다니홀           |
| 10월 13일(주일)            | 선교주일 예배   | 1~5부        | 본 당            |
|                        | 선교주일 광장행사<br>(해외선교, 학원선교, 외국인예배 홍보,<br>문화선교 공연) | 09:00~16:00 | 베다니광장          |
|                        | 해외선교 보고 특강                                      | 15:00~16:30 | 드림홀            |
|                        | 학원선교 보고대회                                       | 17:00 찬양예배  | 본 당            |
| 10월 16일(수)~<br>18일(금)  | 선교부흥회   | 수~금 19:00   | 본 당            |
| 10월 16일(수)             |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                                     | 13:30~16:30 | 50주년기념관<br>드림홀 |
| 10월 18일(금)             | 군선교 전략세미나                                       |             |                |

## 지역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

- 농어촌 선교사역 리포트



영락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자 선교부를 세워 하나님의 제자 된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선교, 해외선교, 문화선교, 미디어선교, 외국인선교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리라 믿습니다.

국내선교는 농어촌선교와 군경선교, 학원선교로 나누어 섬기고 있으며, 모든 선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부장 김순미 장로님과 농어촌선교 지도목사 조두형 목사님과 함께 2019년 농어촌선교 사역으로 서울노회, 충남노회, 충주노회, 진주노회에 소속된 미자립 교회 16개 교회의 청원에 답하고자 순방했습니다.



문영환 안수집사  
선교부 국내선교 농어촌팀장  
인천 교구

시골 구석구석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애쓰는 목회자를 만나러 다니는 농어촌 선교사역은 도움을 드리러 가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청원에 답할 수 없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진주노회 지남교회는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평생 사역으로 강단을 지키고 계시는, 영락교회가 고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과 낡은 식당 개축 청원에 응해 수리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수리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주노회의 화강교회와 신월교회는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부모님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미자립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매년 12월에 초청해 한경직기념관 관람과 시내 관광을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주노회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원으로 충남노회 초평교회에 종탑과 등을 세웠다. 초평교회를 방문한 선교부 교역자와 임원진

충남노회 초평교회는 지역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고자 하는 젊은 목회자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하셔서 교회에 종탑과 등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의 기도처럼 많은 이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안의 인간적인 문제점을 두고 목회자 부부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모님의 눈물의 간증으로 은혜 받았으며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충주노회 느티교회에서도 큰 감동을 누렸습니다. 목회자는 시력장애, 사모님은 언어장애를 안고 다문화 가정들을 열심히 돌보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잘 섬기며 목회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충주노회 하늘꿈 동산교회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예배실로 이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충주노회 하소교회는 목회자가 신장투석 중에도

강단을 지키고 있으며 사모님의 열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건강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자립 교회 가운데 양계나 양봉, 농작물 경작을 하며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주노회의 흰돌교회는 자립하기 위해 양계를 하고 있으나 판로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좋은 사료로 깨끗하게 양계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달걀이라 택배가 될지 의구심을 안고 주문했는데 튼튼하게 잘 포장돼서 한 알도 깨지지 않고 잘 받았습니다. 목회자 부부가 직접 양계를 하니 믿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처 열거하지 못했지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30가구가 농사짓고 살아가는 마을에 44년 전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평균 연령이 70~80세입니다. 교회의 맥을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한 목회자의 안타까운 청원은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남**

# 싱가폴한인교회,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

- 해외선교 리포트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장 8절



윤장훈 선교사  
싱가폴한인교회 담임

‘싱가폴한인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스스로 질문해 본다. 그것은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선교 공동체’일 것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한인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동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한경직 목사는 1976년 12월 1일 이관옥 씨 덕에서 싱가포르 한인들을 대상으로 첫 예배를 인도했다. 당시부터 싱가포르는 중개 무역지로서 교통, 금융, 오일뿐 아니라 기독교 단체 역시 그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었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그런 허브의 나라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한인교회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꼈기 때문이다.

싱가폴한인교회는 1980년 8월 3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싱가포르 한인 역사상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져 목회와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로 39년 된 싱가포르한인교회의 선교 현황은, 현재 다섯 분의 파송선교사(인도네시아 김부열 선교사, 인도의 임하영 선교사, 동북아의 김도은 선

교사, 말레이시아의 Ngau Ajang 선교사, P국의 황요한 선교사)와 23명의 협동선교사 그리고 7곳의 협력기관을 후원하며 현장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

싱가폴한인교회의 주 선교지로서 소개하고 싶은 사역으로는 인도네시아 바탐 투나스 바루(Tunas Bahru) 학교 재단(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을 통한 교육 선교가 손꼽힌다. 1993년에 유치원을 개설했고, 1994년에는 초등학교, 2004년에는 진승중학교, 2009년에는 진승고등학교를 개교해 학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학원 사역 초기에는 영락교회 청년부가 수년간 단기선교로 섬겼다.

진승중학교, 진승고등학교라는 이름에는 순교의 역사가 담겨 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2004년 8월 4일 영락교회 중등부 단기 선교팀으로 현지에 왔던 진우와 승구 학생이 선교 활동 중 순교했다. 두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이름의 앞 글자를 각각 따서 학교 이름을 ‘투나스 바루’에서 ‘진



지난 7월 4일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중학교에서 있었던 영락관 준공식 모습



진승중학교 학생들의 교실 준공 축하 합창

승'으로 개명했다. 당시 영락교회의 이철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제3여전도회와 선교부에서는 진승중학교의 모든 건축 과정에 물질과 눈물의 기도로 후원하며 싱가포르인교회와 동역했다.

현재 유치원부터 진승중학교 및 진승고등학교까지 재학생이 1,500여 명, 교사가 총 60명에 이르고 있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바탐 가운데 세워진 명문 기독교학교로서 많은 인재를 신앙으로 양육해 지역사회에 배출하고 있다. 영혼 구원의 산실로 그 선교적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더불어 김부열 선교사(싱가포르인교회 단독 파송)의 27년간 헌신과 싱가포르인교회 그리고 영락교회의 변함없는 동역의 결실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싱가포르인교회 목회의 중점 사항은 선교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한인교회다. 그것은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 선교하는 교회(Missionary Church)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ongregation)를 향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선교하는 교회(Missionary Church)는 전통

적 선교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물질 및 기도 후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선교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Top-Down) 결정되며, 성도들의 참여가 뒤따르게 된다. 이와 달리 선교적 교회(Missional Congregation)는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선교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땅 끝(행 1:8)이며, 내가 그곳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임을 깨닫는 것이다.

싱가포르인교회는 올해부터 선교적 교회의 단위를 '지역'(5~7 구역의 연합)으로 정의해 '지역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지역 중심 목회는 일종의 신앙의 뿌리내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가지와 줄기를 통해 공급받은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동시에 그 지역 선교의 시작은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인교회의 구역들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한 이후 각 지역이 하나의 선교 공동체



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는 능동적으로 선교의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4가지 단계를 통해 ‘지역 선교’의 다리를 놓아간다.

- ① 1단계 - 선교적 교회의 가장 기본단위 ‘지역’ 구분(2019년)
- ② 2단계 - 지역의 목회적 토양 다지기 및 동남아의 선교지 정하기(2020년)
- ③ 3단계 - 지역 임원의 선교지 탐방 및 지역 선교 준비하기(2021년)
- ④ 4단계 - 9개 지역별 비전 트립 등 선교 시작하기(2022년)

싱가폴한인교회가 추구하는 선교는 교회를 선전하거나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싱가포르’라는 허브 지역에 특별히 한인들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싱가포르한인교회에 머무는 동안 말씀 및 기도의 신앙생활과 동시에 선교 훈련을 하며 선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싱가포르 이후 어느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해 본다. **만남**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중학교에 증축된 영락관 전경



싱가폴한인교회 주일예배 모습

## 2020년 영락교회 목회를 위한 제언\*

2020년 영락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해방 후의 혼란 중에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 세우신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의 보금자리로 출발해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나아가 남북한을 아우르는 민족복음화, 세계를 향한 선교의 장이 되어왔다. 그 비전과 비전을 향한 열정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귀감이 되어왔다. 영락교회의 목회는 한국 교회 목회의 모델이었고, 영락교회의 설교와 사역은 한국 교회 성도 전체를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지난 75년 동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상황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해왔고 여전히 변하고 있다. 그 속도 또한 점점 빨라져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냉소적이며 비판적으로 바뀌었고, 한국 교회는 내적 문제로 인해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사회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상실한 채,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변두리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도 심각한 영적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교회의 영적 능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영락교회는 이런 상황을 잘 견디며 대응해왔다. 그러나 더욱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미래를 장

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영락교회는 영락교회만의 독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매년 300~400여 명의 성도가 별세한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약 4천여 명의 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로한 분들은 영락교회의 예배와 헌금 생활에서 중요한 헌신을 하는 분들이다. 더구나 이분들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서 오셔서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성도들은 그 충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부재는 교회에 막대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10년 후에도 영락교회의 성도가 현재대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은 두 가지라 하겠다.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신앙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결코 간단하지 않다. 둘째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인데 이 또한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영락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인가? 또 10년 후가 더 좋은 영락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

\* 이 글은 제43회 정책당회(9/9~10) 자료집에 실린 김운성 위임목사의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이다. 정책당회 기간 중 당회원들은 위의 목회제언을 바탕으로 그룹별 토의를 진행했고, 향후 TF팀 구성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1. 원리

### 1) 성경적 교회

영락교회는 철저히 성경에 입각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나 일부 성도들의 견해에 의해 주도될 수 없다.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초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식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2) 불변 가치의 수호

영락교회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불변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 가치들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진리를 가르치고 선교하며 봉사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 3) 적극적 변화의 수용

불변 가치 수호와 함께 영락교회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생소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시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수용성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 4) 성령님을 의지하는 영적 부흥 우선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영적 부흥에 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적 부흥이 불가능하다.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역사에 적극적이

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에 둔감해지고, 제도와 조직과 규정에 매이는 교회는 침체한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발 빠르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 5) 질서와 화평 및 사랑의 유대

이와 함께 교회는 질서와 화평을 유지해야 한다. 질서가 있어야 화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제에 의한 질서는 화평을 가져오지 못한다. 진정한 화평은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우러나는 질서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이때의 질서는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질서라기보다는 배려와 양보와 존중을 통해 지켜지는 질서다. 이렇게 될 때 사랑의 유대가 가능하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지적하고 비판함으로 지키는 질서는 사랑을 깨뜨린다.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질서도 지켜지고, 사랑도 증진된다.

## 2. 원리 중심으로 영락교회가 모색할 일

### 1) 영적 성장과 사역의 순환구조 확립

건강한 교회는 먹은 후에 일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먼저 일하고 먹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원리다. 아이는 먼저 먹고 성장한 후에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먼저 채워진 후에 사역해야 한다. 거룩한 배부름이 있으면 기쁨으로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역이 우선되는 구조는 교회를 병들게 한다. 주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 배부른 후에 일하는 사람은 행

복하다. 영락교회의 성도와 각 부서는 사역에 힘 쓰기 전에 먼저 영적 채움을 소원해야 한다. 사역 중심 교회는 경직되고 갈등이 많지만, 영적 채움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로 더 풍성한 사역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 2) 선택과 집중 및 통합과 조정

오늘날 교회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락교회는 건강한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영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이뤄야 하며, 밖으로는 교계와 사회에 대해 통 큰 헌신과 기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헌신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위축되는 이때, 영락교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2~3년에 한 곳씩 개발 지역을 선정해서 예배당을 짓고 목회자를 파송해 부흥하는 개척교회를 세워야 한다. 또 봉사 혹은 선교적 의미가 큰 프로젝트를 이름으로써 한국 사회와 교계에 감동을 주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서 사역 중 효과가 크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사역들을 정리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약해 교회 개척과 감동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영락교회가 주님의 뜻을 위한 열정적 헌신을 보임으로써 한국 교회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야 한다. 과감히 손을 펴는 교회가 되자.

## 3) 실패를 포용하는 도전

영락교회가 미래로 나가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일, 결과를 확신할 수 없

는 일들에 도전해야 한다. 해 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데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회가 먼저 성도들보다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을 위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등 교회 운영의 전반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한편 도전해 실패하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의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 3. 장기적 과제

### 1) 다음세대를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10년 동안 영락교회는 4천여 명 성도가 별세할 것을 예상함에 따라 그 빈자리를 채울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 : 대한민국 현실에서 20~30대는 과거의 20~30대와 다르다. 과거에는 그 나이에 모두 직장을 가졌으며 결혼한 세대에 해당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아직 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직장을 얻기 어려운 형편이며, 여전히 미혼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위 청년으로 인식되는 기간이 현저하게 길어졌다. 과거에는 30세 넘는 청년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50대의 청년도 존재한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이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조직 개편을 연구하여 35세 이후 세대를 위한 맞춤 조직들을 시도해야 한다.



⑥ **재정** : 앞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인해 젊은 이들의 재정 자립이 힘든 형편이다. 이를 감안해 이들이 영락교회의 미래임을 고려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⑦ **미래 공간 확보** : 영락교회 30·40세대는 교회 안에 자신들의 공간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세대를 위한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1)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과감하게 재구성하고 재배치하는 방법, 2) 교역자 사택을 외부에서 영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목양관을 성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 3)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의 영락교회의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⑧ **남녀선교회의 통합** : 남녀선교회가 따로 활동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미 사회는 가정 중심 구조로 이동했다. 따라서 남녀선교회를 가정 중심으로 재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재 남녀선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 될 것이다.

## 2)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과제

⑨ **‘주말교회’에서 ‘주중교회’로!** : 영락교회 주변에는 주택이 많지 않으므로, 주일에 모이

는 교회 개념에서 ‘주중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직장인 예배를 활성화하고, 인근 기업들 안에 신우회가 조직되고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주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아침 기도회, 카페 아침 예배 운영, 조용히 쉬며 묵상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제공, 외부 직장인들을 위한 테드(TED)\* 강의 방식의 강좌 운영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⑩ **소그룹 활성화** : 대형 교회가 가진 약점인 영적 모임과 교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소그룹 활성을 꾀함으로써, 그 안에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은 교회 차원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적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⑪ **전문인 그룹의 활성화** : 영락교회 안에는 다양한 전문인들이 있다. 이들을 직능별로 묶어서 활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계 집단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고, 이러한 인재풀은 청년들을 위한 멘토 그룹이 될 수 있다.

⑫ **문화 영역의 개척** : 장차 교회와 사회의 만남의 접착점은 문화가 될 것이다. 문화적 사역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인재를 키우고 작은 것부터

\*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 1984년에 TED가 창립된 이후 과학에서 국제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강연회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터 시작해 문화적 영역을 확대해야 하며, 50주년 기념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㉔ **열린 교회로의 전환** : 영락교회는 거대하고 웅장하나 닫힌 느낌이 강하다. 접근로가 그러하고, 색이 그러하다.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 색을 입힐 필요가 있다. 교회 외벽 등을 활용한 홍보 광고가 필요하고, 누구나 쉽게 교회 뜰에 드나들고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의 사역 등을 만날 수 있는 야외 홍보 시설이 요청된다.

㉕ **80주년 기념 프로젝트들과 연계하여** : 이상의 다양한 필요성을 8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지금부터 추진함이 필요하다. 사랑부 지체들을 위한 돌봄 시설, 교역자 사택 문제 해결 등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 2020년 영락교회 교회 표어 : ‘이 때를 위함이라’

##### 1) 표어 성구 / 에스더 4장 13~14절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 4:13~14)

#### 2) 실천목표

㉖ **때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 자신의 시공간적 상황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가지도록 기도한다.

㉗ **때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 :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공간적 상황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한다.

㉘ **때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공간적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다운 헌신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2020년은 한경직 목사님 20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금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의 정신을 재구현하는 것이다. 영락의 성도들이 작은 한경직처럼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시대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셨다. 그 시대가 한경직 목사님의 ‘이 때’ 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때’에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 증거 및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예배만 드리고 흠여지거나 말로만 섬기는 데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020년에는 성도들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구체적인 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2020년에도 기도 운동과 생명 운동을 지속하면서 스스로 작은 한경직이 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란다. **만남**



## 종교개혁 정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 왜 현대 기독교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가?

최근 예장통합 총회 통계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교세 통계 현황'이 교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예장통합 소속 교회 교인이 약 7만명 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인 교회학교 전 부서 즉, 영·유아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청년복음화율이 3%에 해당한다는 한 선교단체의 위기감 섞인 통계 발표가 있는 후, 우리나라 청년들이야

말로 미전도 종족그룹 아닌가하는 자조 섞인 한탄마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 다음세대와 청년들은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 점점 더 세상 속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급성장한 몇몇 교회들 가운데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성공지상주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묵회자와 성도들의 타락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과 현상들은 비단 우리나라 특정교단, 교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 교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영적 위기이며, 이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약해지며, 그리스도인들이 감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종교개혁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선 목사  
청년부 전담

###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종교개혁은 결코 과거나 현재에 있어 우리를 사



회적, 종교적, 개인 윤리적 범주 안에 안주하거나 멈추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파송하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주체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소망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였습니다. 이 모토는 자신과 세계를 적응과 타협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부단한 자기성찰과 자기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현재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상황에 도취된다든지, 과거의 향수와 성공에 매몰되어 지금의 상태만을 견고히 유지해나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의 참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기준과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5대 핵심 원리(Five Solas)로 알려져 있는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예수(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 영광(Soli Deo Gloria)’입니다.

이 사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해 나가야 하지만, 그 중앙에는 항상 불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 개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현 시대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본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모아서, 최첨단의 기술력이나 제도, 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극복되고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나마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더욱 더 깊어져만 가고 무거워져만 가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추어 항상 본질을 추구하며 돌아가야 합니다(에드 폰테스, ad fontes).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은 언제나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아모스 5:4)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며,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우리 안에 이 순수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

## 새가족부 정착팀을 아시나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도 평소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곳에 가면 어딘지 낯설고 쭈뼛거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처음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많은 봉사부서가 있는데, 새가족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신앙지도 원칙 아래 전담 교역자 황광용 목사님과 이효준 전도사님이 계시며, 박성만 시무장로

님과 팀 전체를 총괄하는 차장집사, 그리고 2명의 팀장과 행정사역을 지원하는 3명의 임원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팀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의 정착을 돕는 팀입니다. 정식명은 '신앙정착팀'입니다.

정착팀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새가족이 교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새가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5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성장반, 신앙정착반 2개 과정으로 구별해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신앙성장반은 아직 세례를 안 받은 분이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위주로 하는 새가족 성경공부반입니다. A반(2부 예배 후)과 B반(3부 예배 후)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기초 신앙교육과 친교, 돌봄을 통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신앙성장반은 매주 수시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강덕권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새가족부 신앙정착팀장





새가족환영회를 마치고 교역자, 새가족부 봉사자들과 함께

둘째, 신앙정착반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교인 등록을 마친 새가족을 위주로 하는 과정입니다. 매 주일 2, 3, 4부 예배 후에 운영되며, 제자양육훈련부의 2 단계 양육 핵심과정을 적용합니다. 이 분들 한분 한분을 담당하는 정착팀 양육위원이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친교와 돌봄을 통해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셋째, 신앙정착반이나 신앙성장반에 속하지 않은 새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가족부 교육팀에서 5주 교육을 받았지만 위 2개 반에 속하지 않은 새가족을 대상으로 40여 명의 양육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 심방을 통해 안부를 묻고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새가족 환영회와 교회 내의 다양한 교육과 집회 안내, 신앙 상담 등을 통해서 새가족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새가족부 5주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마다 새가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외톨이 같은 마음으로 교

회에 낯설어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한가족이라는 든든한 마음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연중행사로 당해 연도 새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후반기 초청 잔치를 열어 문화 공연과 친교를 통해 새가족이 마음 문을 열고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성장반(2개반)과 신앙정착반(3개반) 반장과 양육위원은 새가족의 정착사역을 위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처음 교회에 나와 낯설어하는 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를 친구로 맺어드리기도 합니다. 한두 달 넘게 전화를 드리지만 전혀 받지 않고 답 문자조차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새가족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늦게 답해 죄송하다는 새가족의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것이 큰 기쁨과 보람입니다. 한분 한분 평안하고 든든하게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는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남**

# 금요일 점심은 하나님과 함께 드세요

## - 우리나라 최초의 직장인 예배 50주년 맞아

1969년 9월 5일 첫 예배를 드린 금요정오예배가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당시 인근의 직장인들을 위해 예배를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직장인 예배의 시작이다.

이를 효시로 현재는 서울 도심에서만도 정동교회, 새문안교회, 종교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직장인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락교회가 주님의 시선을 좇아 영적 메마름을 가진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획기적이고 귀한 계획이었다. 직장 생활의 현장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주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닐까 한다.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나로서는 금요직장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다.

### 만남

정오를 즈음하여 종종걸음으로 선교관을 향하여 금요 직장인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 인근의 직장인들을 만나게 된다.



심혜식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전도부 직장인예배팀장

매주 귀한 말씀을 전하는 신주현 목사님, 천상의 멜로디를 선물해 주는 찬양 대원과 39년째 지휘로 섬기시는 이의용 장로님,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시는 예배팀과의 만남이 소중하다.



## 나도 전도자

전도가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도 정작 전도자로서의 섬김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내일 점심 초대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목요일 점심시간에 금요직장인예배 찬양팀 김기선 집사님, 예배팀 이미화 집사님과 함께 뜻을 모아 교회 인근에서 거리 전도를 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첫 전도사역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을 드려서 기도하며 입을 열었을 뿐인데, 건네준 전도지를 읽고 금요예배를 찾는 직장인들이 있음을 보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명대각성 운동’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움직임이라 재해석해본다. 성령님의 응원을 체험하며 전도에 자신감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19년부터 전도부로 소속이 변경된 금요직장인예배에서는 10월 한 달간 다양한 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직장 크리스천 동료들 예배에 초대하고, 전도하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다.

### ▶ 직장인 초청 선교잔치

일시: 10월 31일(목) 오후 7시 드림홀

설교: 김운성 위임목사

특별 초청: 유정현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클래식

### ▶ 직장 선교 세미나

일시: 10월 18일, 25일 (금) 정오 선교관

주제: 크리스천 직장인의 소명

강사: 방선기 목사 (일터 개발원 이사장)

### ▶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 11월 1일(금) 정오 선교관

선교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직장인 예배는 현재 130~15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영락교회 성도의 수는 많지 않다. 영락교회와 가까운 지역의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이 함께 한다면 큰 힘이 실어질 것이다. 교회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금요일 정오의 선교관이 예배자들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소망한다. **만남**







우리는 메신저스  
(Messengers)  
입니다!

## Vietnam Hanoi



나는 이전부터 아웃리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해외로 나가 외국인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점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처음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점 때문에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지난 8월 9일부터 6일간 베트남으로 약 40여 명이 참여한 중등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전부터 기대가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선교에 대한 생각보다는 단순히 해외로 나간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김규민  
중등부 2학년

었다. 또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중훈련 시간을 통해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아웃리치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에 처음 도착하여 덥고 습한 환경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상황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니, 오히려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는 바울처럼 선



한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한 것 같은 감동이 들었고, 믿음도 더욱 강해졌다.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과 친해지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에서의 시간이 좋은 추억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웃리치에서 인상 깊은 시간이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도 가장 좋았던 시간은 바로 8월 11일 베트남 현지인들과 함께 드린 예배였다. 이전에 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베트남의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일이 있었다. 한국과는 다르게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기독교를 무시하고, 탄압하고, 공격적으로 선교하면 추방까지 당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고, 한국에 비해 성도의 수도 적지만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보며 크게 감동했다.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구나...’ 우리는 베트남어를 알지 못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속의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의 아웃리치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 이제부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메신저스의 역할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만남**

## 무덤교회에서 되찾은 뜨거운 감사

# Indonesia



비전트립 출정 예배를 비롯해 많은 기도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 준비 끝에 지난 8월 4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로 향했습니다.

비전트립 팀이 열심히 준비한 사역을 완벽히 수행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자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더욱 잘 섬기고 잘 나누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지에 도착해 첫 번째 사역지인 무덤교회로 향했습니다. 뻑뻑하게 들어찬 무덤들 사이의 공터

에 천막과 깔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와 마이크, 스피커가 장비의 전부였지만 열심히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열정과 설렘이 식어갔던 나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교회의 열악한 예배 환경과 뜨거운 예배를 통해 나의 지난 예배를 회개하도록 인도해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은 현지 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무덤교회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먼저 받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무질서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비전트립 팀과 현지인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식료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전트립 기간 내내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제자 훈련 시간



이민음  
고등부 2학년



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나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삶, 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시간까지도 '나는 누구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는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왜 나는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기도, 묵상했습니다. 마음이 조금했습니다. 비전트립 중에 답을 얻지 못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보게 하시고, 내 기도의 방향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기 위해서 썼던 나의 가면을 보게 하였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가면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가면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진실한 모습을 찾

기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비전트립에 임하는 첫날의 자세를 생각했을 때, 준비했던 사역을 완벽히 마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단순히 틀리기 싫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만 같아 문득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답이 왔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위십, 찬양이며, 주가 기뻐하시는 내 행동으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날 유치원 사역과 고아원 사역, 한인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낮은 곳으로 걸어갔을 때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의 브로모산 마을 사역은 페이스 페인팅 사역과 재미있고 활기찬 활동들을 그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저를 주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나의 사랑 나의 여어쁜 자야 (아가 2:13)"라고 부르고 계신 하나님, 이번 비전트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



## 선교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 베트남 선교사역을 마치고

## Vietnam



나는 장신대에 입학해 교회탐방을 하다가 영락교회를 만났다. 1년간 탐방 끝에 정착한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락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교회탐방을 하던 중 초등부 전도사님을 통해 아동부 토요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전도사님은 영락교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해주셨다. 영락교회로 부르심의 우연한 모습이 또 있었다. 학교 수업으로 인도 선교를 갔던 나는 여권을 잃어버려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바로 그 일주일 동안 영락대학부팀이 나와

함께 지내시던 선교사님과 선교활동을 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합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락교회에 다니게 하셨다.

감사하게도 대학부에서 찬양팀 총무로 섬기게 되었다. 대학부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선교를 나가는데 이번 여름은 베트남이 선교지였다.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었지만, 기도 중에 주님께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선교를 위해 팀원들과 함께 워십, 특송, 스킷 드라마 등을 준비했다.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 모여서 기도와 준비에 힘썼다. 그런데 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허리디스크가 생겼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며 말렸지만, 막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은 잘 다녀오라고 하시지 않는가? 순간 의아했지만 실로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베트남에 갔다.

베트남에 도착한 후 비전트립의 시간이 주어졌다. 베트남 최초의 개신교 교회, 궁전, 빈목 땅굴, 풍냐케방 동굴 등 선교사님과 함께 다양한 모습의 베트남을 볼 수 있었고, 그



신재승  
대학부 43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셨다. ‘누릴 때는 누리고, 섬길 때는 섬기자’라는 마음이 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베트남 땅을 품게 하셨다. 수련회는 한-베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독교 사역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규모로 기독교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것도 큰 도전이지만,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연합수련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국인과 서 종교를 전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련회를 개최하게 해주셨다.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수련회의 주인이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우리와 베트남에서 준비한 그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수련회는 하나님 사랑의 초대였다.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 수련회는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조별 게임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다. 한국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녁 예배시간이었다. 디스크로 허리는 아팠지만, 하나님은 나를 찬양인도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아픔으로 평소처럼 찬양을 드리지 못하기에 겸손할 수 있었다. 나는 주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친구들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새 힘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인도해주시고 기쁨 받아주세요”라고 기도드렸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고 함께 뛰며 울동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회복시키심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 감사드리는데는 현지 교단에서 연합수련회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선교사님께 보내신 것이다. 선교사님은 우리 팀을 자랑스러워하시고, 힘이 됐다고 표현하셨다. 우리는 피해를 드리지만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 먼저 우리 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흘러가게 하셨다. 사랑으로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태풍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지도자훈련센터도 방문해 현지 훈련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베트남과 만남을 허락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만남**

## 화요전도훈련이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송숙희 권사  
성남·분당교구  
전도훈련학교(화요반)

전도훈련학교에서 훈련받기 전까지의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건성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삶이 어둡고 힘들었으며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은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보험 일을 시작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상황은 더욱 힘들어져만 갑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두 남편 탓으로 돌린 저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걸치레에 치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황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민의 축복을 통해 저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남·분당교구에서 화요전도훈련을 받고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면서 전도훈련학교에서 전도폭발훈련을 받아보라고 권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돌봐야 하니, 6학년이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인사치레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께서 강력하게 재차 권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저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강력한 권면에 전도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화요전도훈련 자리가 바로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화요전도훈련 팀원들과 함께 (사진 뒷줄 오른쪽이 필자)

제 올케도 그 권사님의 권유로 지난 10년 동안 전도훈련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올케도 만남의 축복을 통해 화요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삶 전체가 점점 회복되고 좋아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막내동생이 암으로 병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시켜주셔서 하늘나라로 평안히 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더욱 영생의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동생에게도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동생을 지켜주셨습

니다. 친정어머니도 이러한 힘든 상황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삶도, 올케의 삶도,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은 삶의 의미를 품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물론 시댁 식구들과 조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화요전도훈련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처럼 삶이 정리가 안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오셔서 전도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 전도와 함께 교회 주변, 병원, 공원 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타 교회 성도님도 여러 해 함께 전도훈련에 참여해 임하고 있는 등 화요전도훈련반에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째 나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낙엽처럼 붙어있으라!” 하셔서 붙어만 있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만남**





## 주님의 거처 삼으소서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의료선교부는 김상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에서 단기 의료선교 사역을 가졌다. 이번 의료선교 사역에는 박성은 지도목사님을 포함 34명이 참여했다. 의료선교부 1년 차로서 나는 의료선교의 첫 단추를 꿰는 소중한 기회로 큰 기대를 갖고 준비했다. 주님께서는 약하고 병든 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이번 의료선교에 참여했다.

청년 하기선교가 끝나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주님의 거처 삼으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의료선교의 목적, 방향,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일할 수 있었다. 선교사역에 임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대원들이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팀별 준비가 시작되었다.

준비단계에서 의료선교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사용하는 일보다는 사람(현지인)을 우선시 하는 데서 큰 감동을 받았다. 지난 5월 의료인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 이분들이 이번 의료선교에 함께 하시므로 진료의 폭을



김영표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의료선교부 부서기



넓혔고, 특별히 검사실을 운영하여 진료의 질과 치료효과를 높이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현지어로 복약지도 스티커를 만들어 약 봉투에 붙여 주는 등 현지인 중심의 섬김을 보면서 세심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11일 오후 9시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모여 각자 맡은 화물을 벨트 컨베이어에 실어 보내고 출국수속을 마치고 함께 기도한 후 비행기에 올랐다. 12일 0시에 드디어 이륙하여 하늘을 날기 시작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고 비상함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시험 앞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잠을 청하였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경유지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수라바야에 9시 경에 도착했다. 어려운 통관절차를 하나님의 은혜로 단시간에 끝내고 첫 사역지 샤론 유치원으로 향했다. 대원들 모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은 피곤했으나 표정은 진지하고 밝았다.

유치원 마당에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상현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후 팀별로 세팅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사랑으로 현지인을 맞이하는 대원들,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민들, 준비한 티셔츠, 팝콘, 풍선을 들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꼬마들과 아동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이렇게 첫 날 사역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감사기도를 드리고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했다.

둘째 날에는 마두라족이 살고 있는 브로모(Bromo)산 쿠라 왕이(Curah Wangi) 교회로 향했다. 고산지대라 시원한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버스 안에서 경건회를 가졌다. 전날까지 우리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지역 촌장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겠다는 결의를 보인 덕에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지역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었다.



셋째 날은 수라바야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집(Rumah Korea)에서 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와 협력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고 무엇보다도 대원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각자의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3일 동안 진료사역, 전도사역, 어린이 사역 등 모두 오전 사백 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전한 복음과 사랑으로 현지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만남**

## 필리핀을 예비하신 하나님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 제2남선교회 공동체에게 필리핀 까비떼(Cavite) 지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4월 담사를 통해 필리핀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D-100일.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매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10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땅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어 이루어 놓고 계셨습니다.



이민하 안수집사  
강북·도봉교구  
제2남선교회 부회장

지난 9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6일간 ‘필리핀(까비떼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곳 센트럴교회 김춘자 선교사(영락교회 협동 선교사)의 사역지를 중심으로 나익교회(자니스 전도사)와 스프링타운교회(국병창 선교사)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현지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위로했고 미전도 18가정을 방문하여 전도와 섬김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며 나누는 초청 잔치와 우물파기, 교회 환경 개선, 사진·안경·복음팔찌·풍선·팝콘 등 도구를 통한 전도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 9)*

믿지 않는 가족 초청 잔치는 센트럴교회, 나익교회, 스프링타운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 믿지 않는 식구가 있는 18가정을 위해 사흘간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팀원마다 워크숍 기간 동안 가정을 품으며 기도 카드를 마련하여 기도와 준비에 임했습니다. 잔치는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라면으로 차렸습니다. 식사 대접 후에 풍선으로, 게임으로, 마스크 팩 등으로 마음을 나누며 복음팔찌로 전도했습니다.

사역 첫날부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각 팀별로 미전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가방을 가지고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바뀐 것입니다! 사역 첫 순서부터 생긴 실수로 무거운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가져간 가방에 챙겨두었던 프라이팬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너무 열악하여 정작 그 프라이팬이 필요한 가정, 그곳은 싱글맘 올리비아 마앗의 가정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구멍가게를 하며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센트럴교회에 출석하지만 어머니 올리비아는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복음에 올리비아는 흐르는 눈물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팀원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센트럴교회 초청 잔치에서 함께 찬양과 만찬을 나누면서 교회에 계속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던 올리비아의 환한 미소를 보며 필리핀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18가정 방문에 연계하여 이어진 초청 잔치에서 다시 만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초청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좁아 근처 마을 회관을 빌려 초청 잔치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얼굴과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한 형제며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프링타운 지역에 방문한 미전도가정 '반 조' 형제의 가정에서 그의 부모님이 초청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낮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참석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공부와 예배에도 참석하겠다는 귀한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에는 말로 표현 못 할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반조 형제와 마지막 인사 자리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더 나아가 필리핀 땅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 이왕기 성도

아내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어부인 남편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라딩라밀로'라는 분인데, 어부라는 직업상 방문할 시간에 일하러 갔으면 집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출발하면서 "주님,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며 방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바다에 못 나갔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딩라밀로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 현재호 안수집사

센트럴교회에 우물 사역과 나익교회, 스프링타운교회의 교회환경 개선사역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센트럴교회 녹색 울타리로 잘 갖추어진 우물(우리나라 옛 작두 펌프)앞에서 통수식. 물 부족 국가이면서 화산지 역인 이곳에서의 우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센트럴교회의 성도 및 이웃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악취가 나고 열악했던 나익교회의 화장실은 예쁜 타일로 마감한 샤워시설로 인한 편안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방치된 교육 관은 말씀을 나누는 교육공간으로, 때로는 주방시설을 갖춘 식당으로 변모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스프링타운교회에 기증한 음향시설은 예배와 전도사역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 조광래 안수집사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사역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본부의 전도사역으로 진행된 사진, 안경, 복음팔찌, 풍선, 팝콘 등은 현지인들에게 즐거움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은 거 하나, 길가에 버려지는 돌이라도 주님께서서는 귀하게 사용하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만들어준 사진과 액자를 볼 때마다 교회와 선교단원들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사역의 액자는 지역주민을 향한 전도지였습니다. 안경사역에서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안경을 맞추어 주고 주기도문을 읽게 하여, 시력 검증을 수단으로 복음팔찌를 통한 복음제시로 영접기도문을 읽게 하여 복음의 완성을 이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영접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을 볼 때, 100일 동안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민들의 마음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추수할 뿐임을 느낄 수 있었

습니다. 풍선을 만들어 주면서 제시한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고, 주민회관 입구에 설치한 팝콘의 고소한 냄새를 술술 말으며 모여든 현지인들에게 한 손에는 갓 튀겨진 팝콘 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전도지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한 줌의 팝콘도 소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김은형 안수집사

또 우기와 세 가지 태풍이 예보된 날씨였습니다만, 필리핀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비를 막으시고 해를 가리셔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철 지붕 집 안에서 사역할 때 비가 내렸다면 빗소리에 복음 전하는 음성 이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뜨거운 햇살이 비쳤다면 내부가 상당히 더워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며 인도하는 사역에 최고의 환경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필리핀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그 너머의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동자를 통해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5박 6일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함께 동역한 35명의 팀원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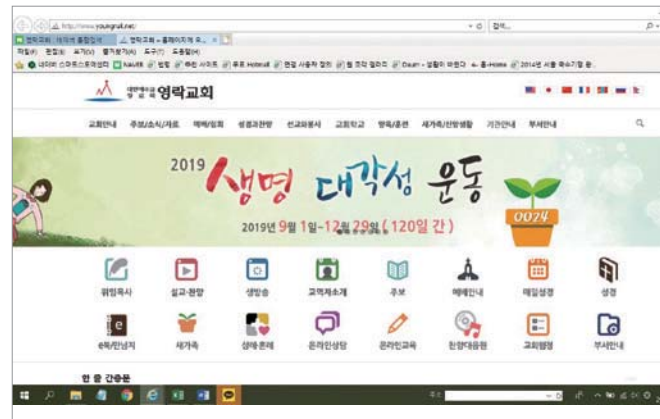
##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문이 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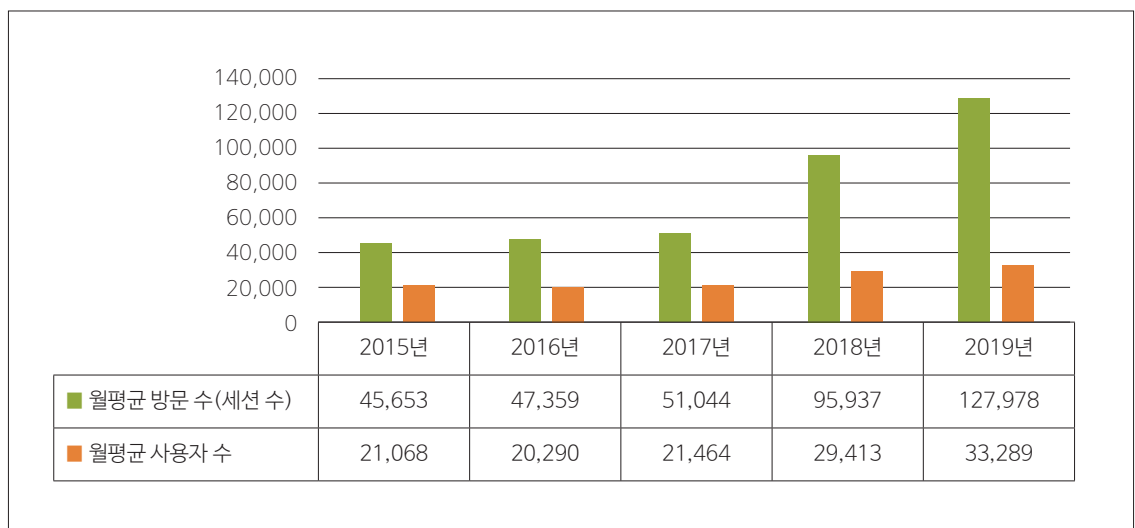
김호진 안수집사  
IT미디어부 차장  
서초교구

### 최근 30개월 동안 방문자 수 2.5배 증가

영락교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해서 나갈 때까지를 1회로 볼 때, 월 평균 방문이 2017년 51,044건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127,978건으로 30개월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홈페이지 사용자 수(동일 기간에 여러 번 방문해도 같은 IP라면 1회로 계산)도 월 평균 2017년 21,464명에서 2019년 상반기 33,28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또한 30개월 동안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 홈페이지 방문 및 사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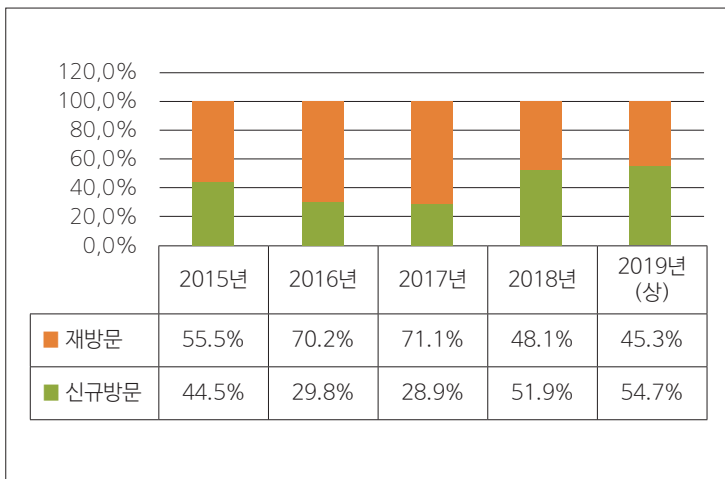


## 2018년부터 신규 방문이 재 방문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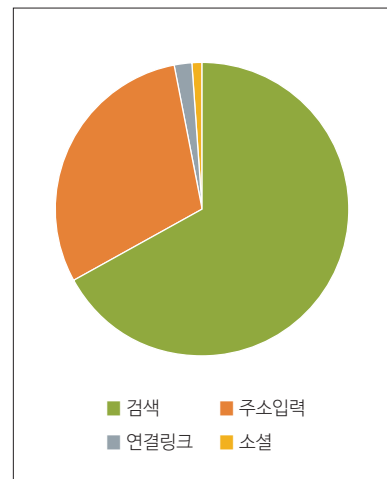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방문자는 신규 55%, 재 방문 45%로 신규가 10% 포인트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는 신규가 29%였는데 지난해 52%로 늘어났고 올해도 신규 방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홈페이지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 홈페이지 방문 루트를 보면 검색 67%, 주소입력 30%, 연결링크 2%, 소셜미디어 1%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 신규방문과재방문



### ▶ 방문 루트



## 예배와 말씀 읽기 도구로 주로 사용

방문자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인터넷 시대에 예배와 말씀을 듣고 읽기에 홈페이지가 감당하는 역할이 보입니다. 사용 내용을 보면, 메인 페이지 25.0%, 설교와 찬양 9.3%, 매일성경과 찬송 5.1%, 위임목사 설교영상 4.8%, 생방송 4.6%, 주보 3.4%, 주일예배 영상 2.1%, 새벽기도회 영상 1.8%, 성경 1.7%, 교역자 소개 1.6% 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홈페이지 접속자가 홈페이지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는 도구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특히 많은 성도가 매일성경과 찬송 메뉴에 접속해 매일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고 매 주일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문 수가 260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편



IT미디어부는 현재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도의 신앙 생활과 소통을 돕도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접속 통계를 바탕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를 상위로 배치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목회 방침에 부합되도록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메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제직부와 성경공부반 등 여러 조직의 다양한 요구를 홈페이지에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임직원과 봉사자들은 매주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63%에 이르고 있어 모바일 환경에 더욱 적합한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가을에는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IT미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락교회 홈페이지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기도를 기대합니다. **만남**



### 모바일 TIP

휴대전화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홈 화면에 추가'를 해 놓으면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젖어드는 학생들의 영혼



유인선 목사  
영락의료과학교 교육

### 회복이 절실한 어린 생명들

졸업한 두 친구가 찾아왔다. 19년 2월에 졸업한 백 군과 안 군이다. 두 친구는 대학 생활이 재미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한 친구가 한 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한다. 학교에 채플(예배)이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예배가 그리운다는 말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한다. “목사님, 애는 울보였어요. 예배시간마다 울었어요.” 울보는 백 군이다. 고등학교 시절 예배시간에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요즘 들어 조금씩 깨닫고 있다고 한다. 눈물이 씨앗이 되어 점점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이야기한다. 안 군이 한마디 덧붙인다. “목사님, 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예쁘죠?” 이 친구는 고3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친구였다. 이것이 학원선교의 달콤한 열매 아닐까?

학원선교 예배는 특별하다. 가랑비에 옷 젖듯 예배를 통해 학생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젖어 들기 때문이다. 때론 교목으로서 학원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절망감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시며, 학생들의 변화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학원선교 예배는 특별하다. 학원선교 예배현장 가운데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 예배를 드리는 학원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선생님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다. 담임 반 학생의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빈소가 언제 차려질지 모르고, 장례식도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이었다. 며칠 후 그 학생의 집에 위로 심방을 갔다.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오랜 세월 누수로 천장은 다 썩어 있었고, 모든 방의 벽은 검은 꽃들이 피었다 진 흔적들로 가득했다. 누수의 여파로 누전되어 전기 일부는 사용할 수 없었다. 화장실은... 어찌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 게 되었을까? 이유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과 아버지보다 더 일찍 떠나버린 어머니의 빈자리 때문이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A 선생님은 건강검진과 정신과 상담을 진행해 주셨다. B 선생님은 집의 수리비를 보태주셨다. C 선생님은 생필품과 옷가지를 사주셨다. D 선생님은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주셨다. 이 외에도 여러 선생님이 집 청소와 기본적인 수리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여전히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현재 이 친구는 모든 면에서 회복을 이루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안식처가 정비되었고, 정기적인 전문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전에는 두려움, 어려움이라는 깊은



영락의료과학고는 체계적인 의료특성화 교육(사진 왼쪽) 뿐만 아니라 바이블그라운드(오른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신앙성장을 돕고 있다.

물 속에 빠져 있어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스스로 움직이며 살기 위해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어려운 일을 놓고 “함께 하자!”는 외침에 “함께 하자!!”라고 대답하며 헌신하는 기독교 교사들이 있기에 학원선교 현장은 행복하다. 모두 함께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기독교 교사들이기에 학원선교 현장은 행복하다.

### 매주 1회 점심시간에 성경읽기

2018년 2학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바이블그라운드(말씀의 땅)’라는 이름의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했다. 몇 명이 모일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며 시작했다. 30여 명의 친구가 모였다.

호기심에 나온 친구, 연행되어 나온 친구, 학교 QT 모임을 사모하는 친구 등 이유는 다양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말씀 자리에 나온 기뻐하고 예쁜 친구들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씀의 기쁨’과 함께 ‘먹는 기쁨’을 주고 싶어졌다. 예산을 위해 사랑하는 영락교회에 요청하기도 했고, 동역하는 기독교 교사(본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매주 간식이 준비되었고, 2~3회 정도는 수준 높은 간식(피자, 치킨, 초

밥, 샌드위치)을 줄 수 있었다. (‘초밥’을 간식으로 준 학교가 있을까? 뿌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이블그라운드’ 첫 학기 모임을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다. 약 30명의 친구와 함께… 할렐루야!

2019년 1학기. 겸손한 마음으로 첫 모임을 시작했다. ‘먹을 것’의 영향력인가? 기도의 힘인가? 50명 이상이 모였다. 하지만 감사함은 잠시. 간식 부족, 좌석 부족, 소란함 등으로 인해 진땀 빼는 첫 모임이었다.

장소를 넓은 곳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모임을 시작했다. 1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조용한 말씀 묵상은 힘든 상황이 되었고, 구경꾼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했다. 마치 예수님을 보러온 삭개오와 동네 사람들 같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모임을 진행하며 점차 안정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이블그라운드’ 모임을 잘 마칠 수 있었다. 12월 마지막 모임을 맞이하며 결산해보았다. 총 13회 모임, 평균 80명 출석, 개근 11명, 정근 수두룩, 1회 이상 다녀간 친구가 약 150여 명 되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2019년 2학기 ‘바이블그라운드’가 다시 시작되었다. 첫 모임에 80여 명의 친구가 참여했다. 여전히 떠들고 장난치고, 간식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이유야 어찌 됐든 좋고 감사하고, 이 녀석들 참 예쁘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 만남



이 간절한 삭개오를 알아보셨다. 그리고 이름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어울려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이블그라운드’에 나온 친구들 한명 한명을 바라보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함께 어울려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학원선교의 설렘이다.

### 자발적 학부모기도회로 발전

작년 이맘쯤 학부모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하는 내용 중 반가운 소식은 극히 드물다. 두렵고 떨림으로 통화를 한 이후 내 심장은 두근두근 떨리고 있었다. 전화 내용은 이러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모였고,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기도 응답이었다. 학부모 기도회 구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대박!

우리는 바로 ‘학부모기도회’를 시작했다. 5명의 첫 모임으로 시작하여 현재 12명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나눔의 농도가 진해지고, 기도는 깊어진다. 또 자녀 양육 중에 품게 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자녀 양육에 매진하다 정작 돌보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기도하는 학부모’가 있어 힘이 된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 학원선교가 기대된다. 특히 자신의 부모가 늦은 시간 학교에 나와 눈물로 학교와 학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 학생들의 삶의 모습도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과 학교와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학원선교이다.’ **만남**

## 경천애인의 기독인재를 기르는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정해일 집사

영락의료과학고 교무부장, 인천교구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는 1952년 6월 10일 영락교회 내 청소년 성경구락부 중등부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의과학분야 국내 유일의 특성화고로서, 영락학원 소속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경천애인의 건학 이념과 ‘은혜, 진리, 사랑, 봉사’의 네 가지 정신 아래 의료관련분야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년 당 6학급(보건간호과 2학급, 의료비즈니스과 2학급, 의료IT과 1학급, 3D콘텐츠디자인과 1학급), 총 18학급 350여 명의 학생들을 40여 명의 기독교사들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본교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더 많은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경천애인의 인재 양성’이라는 본교의 설립목표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과 5G(Good Students, Good Teachers, Good Curriculum, Good Environment, Good Relation)의 실천 영역의 균형을 기반으로 취업중심 선도학교, 선취업후학습 선도학교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기독교 신앙으로 길러진 의료 관련 기능 인력을 구하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를 소개해 주십시오.



▶ 학과별 목표와 주요 취득 자격증, 주요 진로, 교육과정

| 학과    |     | 보건간호                | 의료비즈니스                       | 의료IT                          | 3D콘텐츠디자인                        |
|-------|-----|---------------------|------------------------------|-------------------------------|---------------------------------|
| 목표    |     | 병원 전문인력 양성          | 의료행정 전문인력 양성                 |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 3D콘텐츠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 주요자격증 |     | 간호조무사(국가자격증)        | 전산회계, 병원코디네이터                | 의료전자기능사                       | 3D프린터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
| 주요진로  |     |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 병원의 행정직                      | 의료기기관련 회사                     | 의료 3D콘텐츠인 치아, 의수족이나 의료기기 디자인 분야 |
| 교육과정  | 1학년 | 간호의 기초, 인체 구조와 기능 등 | 회계원리, 컴퓨터시스템 일반 등            | 컴퓨터시스템 일반, 정보처리와 관리 등         | 컴퓨터시스템 일반, 디자인 일반 등             |
|       | 2학년 | 요양지원, 기초간호임상실무 등    | 상업경제, 사무행정,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등      | 의학용어, 전기전자기초, 디지털 논리회로 등      |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
|       | 3학년 | 공중보건, 보건간호일반        | 의료서비스마케팅, 건강보험실무, 회계·세무 실무 등 | 의료기기생산, 의료기기인허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 디지털디자인, 3D프린터제품제작 등             |

지금까지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 학교가 기독교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의 많은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교홈페이지 <http://youngnak-c.hs.kr>

▶ 연락처 02-884-1004(대표전화)



##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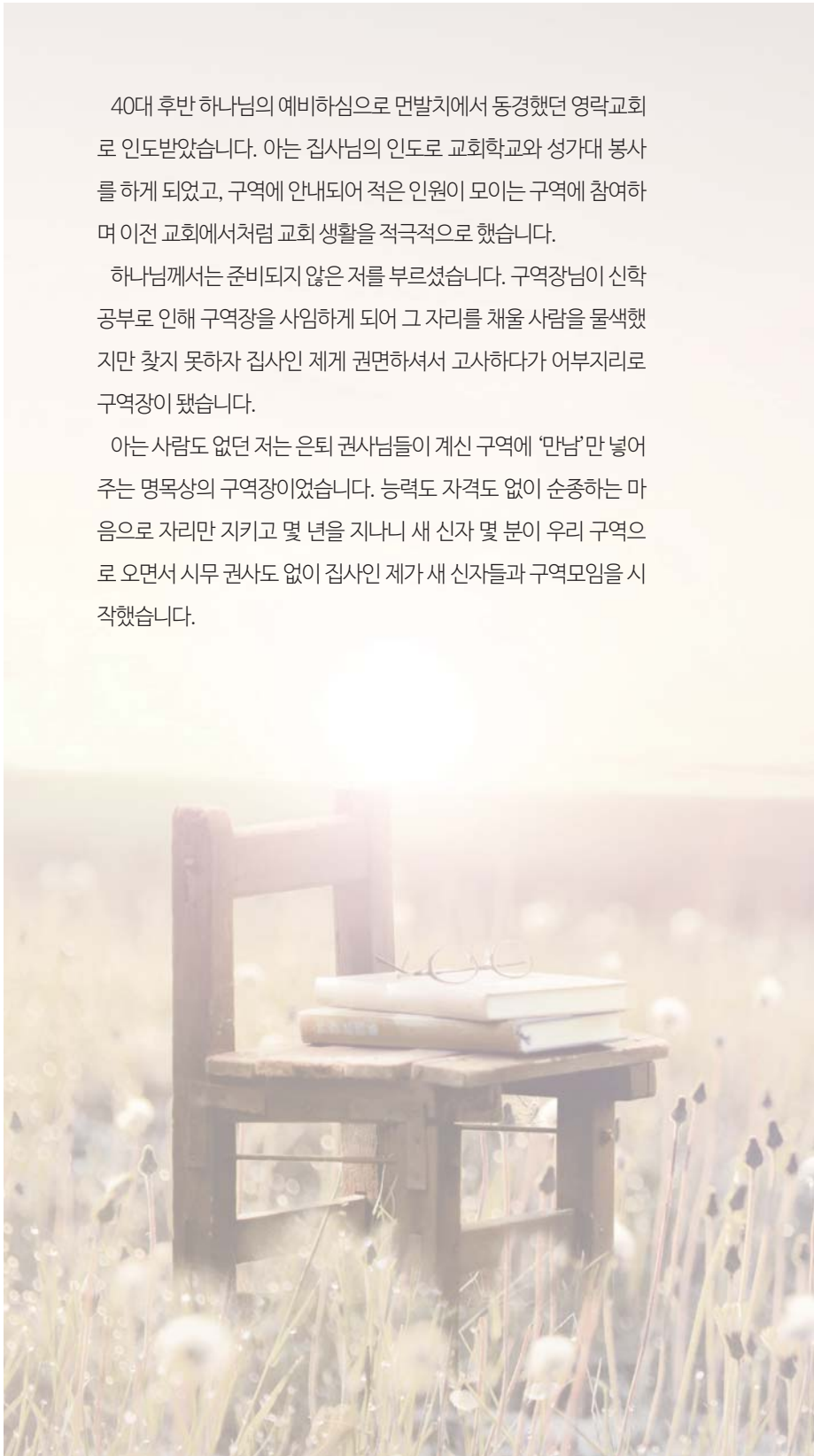
40대 후반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먼발치에서 동경했던 영락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아는 집사님의 인도로 교회학교와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되었고, 구역에 안내되어 적은 인원이 모이는 구역에 참여하며 이전 교회에서처럼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준비되지 않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구역장님이 신학 공부로 인해 구역장을 사임하게 되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물색했지만 찾지 못하자 집사인 제게 권면하셔서 고사하다가 어부지리로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던 저는 은퇴 권사님들이 계신 구역에 '만남'만 넣어 주는 명목상의 구역장이었습니다. 능력도 자격도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만 지키고 몇 년을 지나니 새 신자 몇 분이 우리 구역으로 오면서 시무 권사도 없이 집사인 제가 새 신자들과 구역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허귀옥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55 구역장





한 달에 한 번 저의 집에서 예배와 교제로 몇 년을 활성화하다가 한 구역원이 먼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모임이 소홀해졌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 가정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권사님께 가끔 찾아가 얘기 들어주고, 예배 참석하는 분과는 매주 잠깐이라도 얼굴을 뵈고, 직장 생활 등 여러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그들의 삶에 개입해주시도록 기도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40대의 젊은이들을 구역일꾼으로 세우려고 나름 노력했어도 여러 일로 바쁜 그들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따라 구역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하였지만 대신할 사람이 없어 혼자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신실하고 믿음이 돈독한 또래의 권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그 권사님과 함께 구역예배를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매달 5, 6명이 모여 예배와 나눔 중보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은혜로운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신했던 구역 식구가 다른 교구로 이사 가게 되거나 가정사와 예기치 않은 행사가 겹치는 등 핑계와 합리화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을 제외하고는 신앙 연륜이 오래되지 않았고 젊은 분들은 참석이 어려운 구조에서 주님의 부름을 알면서도 분위기와 타협하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 이름뿐인 구역장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제가 기도하던 제목들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 해결해주셨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구역 식구 한분 한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구역장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고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구역모임을 더욱 성실히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또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권사님과 40대의 젊은 식구들이 구역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고 구역모임에 성실히 참여하시는 집사님들, 건강이 좋지 못하여 예배 참석이 어려운 은퇴 권사님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는 못해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젊은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섬겨주시어 더욱 풍성한 구역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구역이 부흥되어 신실한 후배님들이 이 자리를 이어받을 기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 아이들과 함께한 80년 함께라서 아름다운 내일

2019년은 영락보린원이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때까지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80년 전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시던 시절, 병든 한 가정의 어린 딸 복순이를 보살피기 위해 신의주 하정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10여 명의 아이들을 모아 신의주 보린원을 개원하셨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남신의주 외곽에 넓은 터를 구하여 큰 벽돌집 두 채와 작은 부속건물 두 동을 지어 국경 일대의 아동과 홀로된 어르신까지 보호하는 복합시설로 발전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신의주 보린원 직원 몇 명과 아동 17명이 함께 서울로 와서 충무로 2가에 서울보린원을 재건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 자리로 이전하여 영락보린원으로 개명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1,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영락보린원을 거쳐갔습니다. 6.25후에는 전쟁고아가 많았으나 요즘은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부모는 있으나 가정이 없는 어린이들이 많아 보육사역의 새로운 전망을 요구



김병삼 안수집사  
중구·용산교구  
영락보린원장



- 1 신의주 보린원 전경 (좌측 작은 집이 한경직 목사님 사택, 1944년)
- 2 보린원 마당에서 열린 운동회 (1962년)
- 3 보린원 여름캠프 (1992년)
- 4 성탄예배 후 한경직·임영수 목사님과 함께 (1993년)

받고 있습니다.

8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의 노고와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보린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열정과 자신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락보린원은 아이들이 매일 경건회와 주일 교회예배 등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곧고 아름답게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교류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영락보린원을 사랑하고 아껴 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락보린원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0월 5일(토) 오후 4시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지난 80년을 돌아보는 사진전과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우리들의 자리에 함께하셔서 많은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 환경미화봉사에 참여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성경에 기초하여 살기를 원한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 본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일 것이다.

기독교인의 적극적 선 개념을 교회 안팎의 환경미화를 통해 실천해보기 권한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수만 명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간다. 예배드리는 곳, 식사하는 곳, 쉬는 곳을 거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상황을 만난다. 거리에서 보이는 쓰레기, 교회 주차장에 보이는 오물, 성전 여기저기에 두고 간 주보와 휴지, 컵, 음료수병 등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아픈 장면이 펼쳐진다. 예배당 출입구 옆 안내 테이블 위 새 주보 위에 사용한 주보가 겹쳐져 있다. 식당 테이블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다. 휴게실 테이블에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런 장면에 눈살을 찌푸렸을 수도 있다.

오늘 내가 겪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적극적 선(깨끗하게 치우기)을 행했나? 소극적 선(안 버리고, 안 흘리기)을 행했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버리고, 흘리기)를 끼쳤나? 기독교인의 행동은 당연히 적극적 선이어야 한다.

자원봉사부에서는 교회 안팎 환경미화를 통해 적극적 선을 실천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처소를 깨끗이 청소하는 베다니환경팀, 본당환경팀이 있고 주일마다 기념관 1층 음용수대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주일봉사팀이 있다. 주일과 금요일에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팀도 빼놓을 수 없다.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온 가족 5명이 주일의 환경미화 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는 기독교인의 윤리를 실천하는 현장이며, 바람직한 자녀교육 모델로 최고이다.

제공 자원봉사부

자원봉사부 환경미화 봉사를 통하여  
기독교인의 적극적 선을 실천합시다!!

- 매주 금요일 예배당 깨끗하게 청소
- 주일마다 기념관 1층 청결봉사
- 주일·금요일 교회 주변 청소



##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따른 작은 야고보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가 야고보다. 이것은 구약의 야곱에 해당하는 신약의 이름이다. 특히 이름은 예수와 관련된 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예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고(마 13:55; 막 6:3), 열두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

열두 제자에 포함된 두 야고보는 종종 혼동을 일으킨다.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구분하기도 있지만, 그저 야보고라는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요한’과 함께 나오는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보면 혼동을 막을 수 있다. 사도들의 목록(마 10:3; 막 3:18; 눅 6:15; 행 1:13) 외에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따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서에는 “작은 야고보”라는 표현이 단 한 번 복음서에 등장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멀리서 바라보던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막 15:40)가 있었다. 이 여인을 마태복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27:56)로 부른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 중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막 16:1)가 보인다.

어쨌든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마가복음의 “작은 야고보”와 동일 인물인 것 같다. 그는 사도들의 목록 외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처형장까지 갔을 뿐 아니라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의 무덤에까지 갈 정도로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족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말이다. 스스로 예수의 처형장과 무덤에까지 따라갈 정도였다면, 그녀는 분명히 아들이 가는 길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축복하고 기뻐했을 것이다.

사실은 예수께서도 지상사역 기간 중에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때가 있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의 친족들이”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가 미쳤다”(막 3:21)라고 했는데, 여기서 ‘친족’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상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만남**

# 기독교 미술은 신앙고백이자 예배, 구원의 메시지 KCAF 2019

기독교 미술인의 모임인 KCAF(코리아크리스천아트피스트, 이하 아트피스트)가 2012년에 결성되어 해마다 기독교 미술 전시와 세미나, 선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아트피스트에는 영락교회와 동안교회,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등 교회와 섬미술선교회, 백석대학교 기독교미술 대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아트피스트의 설립 정신은 기독교 미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바람을 기초로 한다. 첫째는 기독교 미술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력. 둘째는 기독교 미술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미술의 가치를 찾는 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영락교회 선교부 내의 문화선교에 속한 영락미술선교회는 지난 9월 21일 한경직기념관 지하 1층에서 '땅에서도'라는 주제로 2019 아트피스트 영성·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기독교 미술인들이 예술이라는 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복



김갑수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영락미술선교회장



음선교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열렸다. 영락미술인 선교회 소속 미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 첫 순서로 영락교회 문화선교를 맡고 있는 조두형 목사가 ‘복음과 문화’(창 1:28~31)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왜 무기력한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기독교가 문화 생산의 중심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목사는 “지식과 정책, 문화 생산의 핵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신앙) 모델을 제시할 때 사회와 문화가 변화될 수 있다”며 “영역별 작은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세상과 소통을 이어가며 각 영역에서 혁신적 기독교 리더를 양성해 문화 생산의 핵심 인재와 깊은 영성을 가진 대안적 지도자들이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선교와 미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수정 제주열방대학 순수미술학교장은 “기독교 미술인들이 선교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며 “하나님이 부르신 예술(미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견고케 하는 일을 깨닫고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별로 선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미술 사역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중국, 짐바브웨, 인도, 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미술 작업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놀랍고 은혜로웠다.

김병호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땅에서, 기독교 미술의 길’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문화사역자의 길, 누구에 의한 예술인가? 누구를 위한 예술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술가란?’ 등 묵직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영락미술인선교회와 아트피스트는 아래와 같은 다짐을 내놓았다.

- ① 기독교 미술은 ‘예배로서의 미술’이 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와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 ② 모든 예술작품은 ‘영적 차원’을 갖는다. 기독교 미술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생성된 예술적 물음에 대해 ‘깊은 묵상’인 ‘예배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더불어 창작 행위가 개인적 예배의 기능을 가질 때 미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시각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고, 작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통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미술의 작가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예배로서의 미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미술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작가의 ① 신앙고백이고 ② 미적 예배이며 ③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적 도구이며 ④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찬양의 도구임을 확신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더욱 치열하게 이 사명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모든 은혜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50여 명의 미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정기전시와 특별전시 등 지금까지 12회의 전시회를 가졌으며 한경직기념도서관, 영락수련원, 50주년기념관 등에 다수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교회에서 성탄절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만남**

**\*영락미술인선교회 가입과 활동 문의: (010)4264-7408**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 10월의 상영작



6일



## 아이반호 (Ivanhoe, 1952)

감독 : 리처드 소프 주연 : 로버트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 조안 폰테인  
장르 : 어드벤처/드라마/로맨스/멜로  
상영시간 : 1시간 46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을 정복한 노르만족의 왕 리처드 1세는 용맹스럽다 하여 '사자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앵글로족 기사 아이반호는 그를 모시고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는 사이 영국은 리처드 1세의 동생 존이 왕위를 찬탈하기에 이른다. 전쟁이 끝난 후, 노르만족의 앵글로색슨족에 대한 차별은 심해진다. 한편, 유태계 부자 아이작의 엄청난 부를 노린 존왕의 계락을 벗어난 그들은 추적을 피하는 신세가 되지만, 마침내 충성스러운 기사 아이반호와 서우드쉴의 의적 로빈 후드가 의기투합하여 존왕을 밀어내고, 다시 리처드 1세를 옹립한다.



13일

## 워룸 (War Room, 2015)

감독 : 알렉스 켄드릭  
주연 : 프리실라 샤이어, 카렌 애버크롬비, T.C. 스타링스  
상영시간 : 2시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진짜 적과 싸우는 유일한 전략,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 '토니', 사랑스러운 딸 '대니엘'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 걸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새로운 고객 '클라라' 부인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적에게 맞서는 법과 함께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조언을 받는다.



(상) 20일

(하) 27일



## 벤허 (Ben-Hur, 1959)

감독 : 윌리엄 와일러  
주연 : 짐 캐리, 모건 프리먼, 제니퍼 애니스톤  
상영시간 : 3시간 32분 등급 : 전체관람가

서기 26년, 로마 제국 시대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의 유대 귀족이다. 어느 날,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오고, 그를 보좌하는 주둔 사령관으로 벤허의 옛 친구인 멧살라가 임명된다. 어린 시절과는 달리 로마와 이스라엘이라는 적대적인 상황에 의해 둘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게 되고, 신임 총독의 부임 축하 행진 중 벤허의 여동생 티자의 실수로 총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멧살라는 유다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몰아 벤허 가족을 잡아들이고, 벤허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 제43회 정책당회, 2020년 교회표어 ‘이 때를 위함이라’ (에 4:13~14)



2020년 교회의 목회 방향을 공유하고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도록 정책과 사역을 논의하기 위한 제43회 정책당회가 지난 9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양일간 설악수양관에서 열렸다. 첫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목회 중점과제에 대한 설명, 원로·은퇴장로들과의 대화 및 제직부서, 특별위원회, 법인 및 기관들의 사역계획 보고와 토론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영락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며 바람직한 교회의 미래 모습과 이를 위한 변화의 노력을 주제로 4개의 소그룹 분임 토의를 통해 당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히 이번 정책당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교회의 장단기 목회방향을 제안하면서 안으로는 영적으로 채워지고 성장해 가면서 밖으로는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로서 젊은 세대를 배려하고 가정 중심적인 교회로의 신속한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에스더 4장 13~14절에 근거한 ‘이 때를 위함이라’로 선정했으며, 그 배경에는 시대 상황을 분별하고 시공간적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함을 강조하는 뜻이 있다.

제공 박일환 장로(당회 부서기)

## 2019 생명대각성운동을 위한 특별금요기도회

- 거룩한 사람이 불어올 영락의 뜰

상반기 기도대각성 운동에 이어 9월 1일 주일부터 총 120일간의 전도 대장정을 시작한 ‘2019 생명대각성 운동’이 계속된다. 이를 위한 특별금요기도회가 지난 8월 30일과 9월 6일 본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열렸다.

기도회를 통해 김운성 위임목사는 “기쁨과 감사로 전도하는 거룩한 비전의 밑바닥에는 기도 밖에 없으니 영락인들은 진액을 쏟아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면 성령



께서 모두 이루신다”고 강조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소망하며 전도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이웃, 친구, 가족 중 한 달에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 드려서 첫 1,000명을 빠른 기간 안에 이루도록 힘을 결단하며 뜨겁게 부르짖었다. 전도부(부장 박순덕 장로)에서는 생명대각성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전도’라는 전도묵상집을 제작, 판매했다.

제공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생명을 낳는 교사’ 다음세대 기도회, ‘교사의 전인적 자기관리’ 주제로 열려



교육부의 모든 교사를 위한 ‘다음세대 기도회’가 지난 9월 8일(주일, 오후 3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강사 이상억 교수(장신대 목회상담학)의 ‘교사의 전인적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상억 교수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만나 환대하며, 누군가의 영적 성숙과 전인적 건강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을 견딜 수 있는 용기

가 필요하다. 나의 수고와 고단함에 탈진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며 ‘기독교 교사를 위한 자기관리 방법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설문 응답, 척도를 통해 자아를 진단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한 ‘영성 돌봄’, 둘째, 형용사를 통해 감정의 네 가지 차원(기쁨, 슬픔, 분노, 불안)에 대한 패턴을 탐구하여 자기를 조절하는 ‘정서 돌봄’, 셋째, ‘몸 돌봄’ 단계로서 악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제이콥슨의 점진적 근육 긴장 이완 기법’의 방법을 설명하며 실행을 제안했다.

‘다음세대 기도회’는 앞으로 11월 종강까지 2강이 남았으며 교사 재교육 대상자는 각 부서에서 7년 이상 섬기는 교사로 총 7강 중 6강 출석과 소감문 제출로 수료가 가능하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합창과 앙상블의 향연…대학부 SMC찬양대 제36회 가을음악회

대학부(부장 장병건 장로) SMC찬양대의 제36회 가을음악회가 9월 8일(주일) 오후 6시 ‘흠생(희생), 그 십자가 사랑 따라’를 주제로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SMC는 ‘Sanctus Missionary Choir’의 약자로 ‘선교적 찬양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영락의 20대 대학생들이 모인 젊은 찬양대이다.



이번 가을음악회 주제인 ‘흠(기쁨)희(날)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犠牲(희생)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학부 주일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곡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음악회를 위해 새롭게 준비한 곡들을 함께 모여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1부 합창 중심, 2부에선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가 합창과 한데 어우러진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줌으로써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취재 이윤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19년 여름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이 지난 8월 18일(주일)부터 23일(금)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목회자 영성수련에 목회 강사로 참여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자유하는 목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오랜 목회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와 경험을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영성 강사를 맡은 최승기 교수(호남신대)는 영적 분별에 대한 기독교 영성 전통의 지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해 주었고, 성서 강의를 한 정용한 교수(연세대)는 마태복음을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을 전함으로써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영적 체험의 분별과 소명 회복, 실제적인 설교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번 목회자 영성수련은 우리 교단인 예장 통합뿐만이 아니라 예장 고신, 백석, 구세군 등 여러 교단 소속의 목회자가 참석함으로써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이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소중한 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다음 포이메네스는 오는 10월 28일~30일에 있을 ‘2019년 가을 포이메네스 3일 사모 영성수련’이다.

제공 영락수련원

##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특강

지난 8월 31일(토) 오전 11시 봉사관 505호에서는 해외선교부 영락선교훈련학교 주최로 유해석 목사의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다. 강의 내용으로는 기독교인은 이슬람을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무슬림과의 결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등이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지침서인 꾸란은 성경과 60%가 같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석한 80여 명의 성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해석 목사는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본적 차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해석 목사는 1990년부터 OM선교회 소속 선교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선교사로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FIM국제선교회 대표로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역하고 있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및 영락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이하 연합회) 제61회기 제9차 순회헌신예배가 지난 9월 15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었다. 영락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겸해 드려진 이날 예배는 영락교회 제1남선교회장 이흥노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어 연합회 서기 고연석 장로의 기도와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던 후 자양교회 이철규 목사가 빌립보서 2장 19~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헌신하라’

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연합회 회장인 이찬우 장로의 인사에 이어 영락교회 남선교회가 특별 영상을 통해 사역 보고를 진행했고 연합회 총무인 이인철 장로의 연합회 사업보고와 김운성 목사의 축도로 순회 헌신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헌신예배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탈북자 선교전략’이란 주제로 김두연 안수집사(새문안교회)의 특강에 이어 연합회 회장 이찬우 장로의 사회로 남선교회연합회 정기 월례회가 진행되었다.

제공 제1남선교회 사진 원종석 기자

## ‘복음으로 새롭게’ 제3여전도회 신앙수련회 마쳐

제3여전도회(회장 현선경 권사) 신앙수련회가 지난 8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1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복음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신앙수련회에서 강사인 고형욱 목사(꿈꾸는교회 담임)는 오전과 오후 강의를 통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역설했다. ‘공사 중 (빌1:3~6)’이라는 이색적인 제목의 오전

강의에서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오후 강의에서 고 목사는 ‘복음만으로 충분한 이유’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복음의 기쁨으로 주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자”고 권면했다. 오후 강의 시작 전 최민희 집사의 특송과 장미옥 집사의 무용이 어우러진 가운데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 이번 수련회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제3여전도회는 매월 8월말이면 신앙수련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다.



제공 제3여전도회 사진 원종석 기자



## 러시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안수집사회, 연해주 비전트립



안수집사회(회장 한기운 안수집사)는 9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에서 해외선교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인솔 교역자인 차동혁 지도목사를 포함 총 20명이 참여한 이번 비전트립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방의 중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교회(2001년 본 교회 파송 김동익 선교사 사역)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선교사역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러시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배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연해주 지역 최초의 한인촌(韓人村)과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고려인 정착촌(우정마을), 그리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생가 등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여러 지역을 탐방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사진은 러시아 정부의 준공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극동교회 예배당 안에서 비전트립 참가자와 김동익 선교사 부부(사진 앞줄 왼쪽 4,5번째)가 함께한 모습.

제공 안수집사회

## ‘2019 하반기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 250여 명 참여

2019년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통독 사경회가 권사회(회장 홍용희 권사) 주관으로 지난 8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성도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통독 사경회를 인도한 박규성 목사는 성경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연대기별로 분석하여 간단명료한 설명과 성화로 이해를 도우며 5일간의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신·구약 66권을 한 권도 빠짐없이 통독하게 하였다.

통독 과정에 참여한 성도들은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복음의 진리가 잘 정리되어 성경 1독을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5일간 권사회 임원들이 스태프로 봉사하며 접수 및 등록, 음료와 간식을 정성껏 챙겨주는 아낌없는 섬김의 봉사를 펼쳤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영락의료과학고 교장 이·취임 예배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는 지난 8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본교 추양관(대강당)에서 제9대 강유석 교장 퇴임과 제10대 정연 교장 취임 예배를 가졌다. 영락학원 이사장인 김운성 목사와 학교법인 이사진, 영락의료과학고 교직원 및 학생,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이날 이·취임 예배는 교목 유인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이영철 장로(부이사장)의 기도 후, 본교 교사들의 특별 찬양에 이어 김운성 목사가 ‘아름다운 계보(딤후 2:1~2)’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퇴임하는 강유석 교장의 이임사가 있

은 후, 김운성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연 신임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경직 목사님의 교육목표인 경천 애인의 정신으로 선한 인재를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본교를 모범적인 기독교 학교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제공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 박동술 은퇴장로 별세



박동술 은퇴장로가 지난 9월 6일(금)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1938년 경남에서 출생한 고인은 우리 교회에서 1997년 12월 집사 안수를 받은 후, 2006년 12월 제36회 사무장로로 장립돼 2008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면서 상례부장, 당회 교구목양분과 서기 등을 역임했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9월 9일(월) 오전 8시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의 집례로 교회장으로 엄수됐으며, 같은 날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박규성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고인은 부인 김문자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 알려드립니다

#### ▷ 9월호 영락화랑 예수의 12제자 ‘성 마태의 영감’ 그림부연설명

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카라바조는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렸는데, 첫 그림에는 마태가 노동자 복장을 하고서 글을 쓰고 있고, 천사가 그의 곁에 바짝 붙어서 글을 쓰는 그의 손을 인도하고 있다. 카라바조는 사실주의자로서 세리를 글쓰기에 능숙하지 않은 하층민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하층민인 마태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된 점과 함께 그 기록의 과정에서 ‘영감’보다는 직접적인 ‘개입’을 받은 점을 묘사하려한 것이다.





##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새가족 환영 등록일(8월 18일~9월 15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 등록일    | 이름  | 교구 | 구역  |
|--------|-----|----|-----|
| 8월 18일 | 김말미 | 07 | 004 |
|        | 김송찬 | 02 | 055 |
|        | 송원  | 18 | 000 |
|        | 김현지 | 10 | 020 |
|        | 정연민 | 12 | 000 |
|        | 김주원 | 15 | 019 |
|        | 이유안 | 02 | 014 |
|        | 박선유 | 12 | 000 |
|        | 이지한 | 02 | 038 |
|        | 이정우 | 05 | 036 |
|        | 박지우 | 04 | 040 |
|        | 박예빈 | 06 | 054 |
| 8월 20일 | 이유준 | 06 | 018 |
|        | 이서린 | 06 | 032 |
| 8월 21일 | 윤이나 | 06 | 004 |
| 8월 25일 | 김영순 | 04 | 018 |
|        | 김시환 | 10 | 061 |
|        | 박희경 | 04 | 018 |
|        | 곽영애 | 10 | 061 |
|        | 장정우 | 02 | 000 |
|        | 엄진희 | 06 | 037 |
|        | 신광선 | 10 | 070 |
|        | 박진철 | 02 | 022 |
|        | 김동억 | 10 | 061 |
|        | 백지영 | 03 | 016 |
|        | 이미령 | 02 | 000 |
|        | 김지훈 | 05 | 013 |
|        | 김성진 | 10 | 061 |
|        | 김동휘 | 02 | 005 |

| 등록일    | 이름   | 교구 | 구역  |
|--------|------|----|-----|
| 8월 28일 | 윤지예  | 90 | 888 |
|        | 신은지  | 90 | 888 |
|        | 정다운  | 90 | 888 |
|        | 안소민  | 90 | 888 |
| 9월 1일  | 배정용  | 02 | 000 |
|        | 양미열  | 02 | 000 |
|        | 지명옥  | 04 | 076 |
|        | 황보혜경 | 09 | 000 |
|        | 유경희  | 05 | 000 |
|        | 민지은  | 05 | 000 |
|        | 남세령  | 06 | 063 |
|        | 이미나  | 08 | 000 |
|        | 최재서  | 01 | 000 |
|        | 박지현  | 01 | 000 |
|        | 이은정  | 02 | 000 |
|        | 황태영  | 08 | 000 |
|        | 국서현  | 04 | 065 |
| 9월 3일  | 이의순  | 10 | 000 |
|        | 박이루  | 12 | 000 |
| 9월 8일  | 한정자  | 13 | 003 |
|        | 고애란  | 03 | 000 |
|        | 김성재  | 04 | 065 |
|        | 김성우  | 11 | 031 |
|        | 장초아  | 06 | 049 |
| 9월 11일 | 이민성  | 01 | 009 |
|        | 이민이  | 01 | 009 |
| 9월 15일 | 한순자  | 13 | 099 |
|        | 김동규  | 07 | 004 |
|        | 오윤   | 15 | 011 |

## 유아세례를 축하합니다

### 유아세례 유아세례일(9월 1일)

| 이름  | 교구 | 구역  |
|-----|----|-----|
| 이여은 | 17 | 004 |
| 김성연 | 04 | 053 |
| 유주안 | 13 | 014 |
| 한제아 | 13 | 028 |
| 하현  | 17 | 027 |
| 송하늘 | 14 | 018 |
| 이민규 | 10 | 060 |
| 김강우 | 06 | 064 |
| 신율호 | 03 | 030 |
| 이하린 | 12 | 038 |
| 윤찬  | 06 | 004 |
| 박소민 | 03 | 015 |
| 김예진 | 01 | 000 |
| 양승현 | 05 | 025 |
| 김재이 | 08 | 013 |
| 정하윤 | 08 | 024 |

| 이름  | 교구 | 구역  |
|-----|----|-----|
| 이사람 | 04 | 098 |
| 이하영 | 04 | 027 |
| 권하선 | 16 | 014 |
| 임지호 | 04 | 098 |
| 계서연 | 01 | 045 |
| 문하임 | 08 | 062 |
| 안재하 | 08 | 021 |
| 이비사 | 09 | 057 |
| 한지원 | 08 | 058 |
| 최지아 | 13 | 044 |
| 신재윤 | 07 | 031 |
| 왕하나 | 08 | 034 |
| 이정우 | 05 | 036 |
| 이유안 | 02 | 014 |
| 이서린 | 06 | 032 |

## 10월 토요일음악회

토요일 오후 6시, 선교관

|     |                         |
|-----|-------------------------|
| 12일 | 2 <sup>nd</sup> 패밀리 콘서트 |
| 19일 | 호산나 OB콰이어 정기연주회         |
| 26일 | 만돌린 성가 음악회              |

토요일음악회는 크리스천 음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연주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공 음악부



## 목회력

# 10月

|               |   |
|---------------|---|
| 2일(수)         | 선교바자회                                     |
| 4일(금)         | 연합권찰공부, 선교바자회                             |
| 5일(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6일(주일)        | 주일예배 성찬(1-5부)                             |
| 11일(금)        | 문화선교축제                                    |
| 13일(주일)       | 고등부·대학부·청년부·자유인·국제예배 성찬, 제직회, 선교주일/학원선교대회 |
| 16일(수)~18일(금) | 선교부흥회                                     |
| 25일(금)        | 심방준비회                                     |
| 27일(주일)       |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동부 찬양제 리틀스타, 사회봉사주일           |
| 28일(월)~30일(수) |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



## 편집장 레터

‘모순(矛盾)’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순’은 참(T)과 거짓(F)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보았을 때 나타나는 논리적 거짓(F) 현상입니다.

시비(是非)로 얼룩진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모순의 세상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는 옳고, 타자의 입장에서는 그르죠. 또한 그 역(逆)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념 간의 대립, 의견의 대립 등 세속적인 삶의 대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께서는 “광야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으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요한 6:49~59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실 때 기회를 엿보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확실한 뜻을 밝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靈)이니 육(肉)은 무익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완전한 해답을 얻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로만 가능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E. Brunner)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신앙이란 모두에게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물질이나, 하나님이나의 선택의 문제이다.” 빛이나 어둠이나? 하나님이나 물질이나? 이들 모두에게 양 다리를 걸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모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야말로 논리적 모순 극복의 진실된 해결안입니다.

성령이여, 함께 임하소서!

편집장 이동훈



# 2019 선교대회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



김상현 목사  
부광감리교회

## 강사 및 게스트

학원선교대회 : 이규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선교보고특강 : 금주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농어촌전략세미나 : 홍동완 목사(홍천도심리교회),

임기도 목사(소마생명공동체), 백영기 목사(쌍샘자연교회)

군선교전략세미나 : 권오성 장로(예)육군대장,

Pastor Samuel Lee (연합사령부교회),

이동용 목사(진백골교회),

김영석 군목(육군중령)

## 선교부흥회 16일(수)~18일(금) 19:00 본당

학원선교대회 13일(주일) 17:00 본당

문화선교축제 11일(금) 금요심야기도회 베다니홀

해외선교보고특강 13일(주일) 15:00 드림홀

농어촌전략세미나 16일(수) 13:30 드림홀

군선교전략세미나 18일(금) 13:30 드림홀

선교바자회 2일(수), 4일(금) 09:00 ~ 베다니광장



## 성 작은 야고보

Saint James Minor

이 그림은 '성 프란체스코의 대가'(Master of Saint Francis)라 불리는 익명의 화가가 그린 템페라(tempera) 그림이다. 원래 이탈리아의 프라토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교회 제단화였는데, 지금은 미국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는 주로 프란체스코 교회를 위해 그렸으며, 자신도 프란체스코 교단의 수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생생하고도 정열적인 필치로 유명했는데, 이 그림에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성 프란체스코의 대가(Master of Saint Francis), 템페라화, 22.5×48.3cm, 1272년경